7000만 상자 '추석 택배전쟁' 시작

작년보다 30% 증가 사상 최대 물량…업계 비상근무 돌입

주요 택배업체들이 최대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상근무체제 들어가는 등 추석 특수 대비에 돌입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추석선물 물량이 지난해보다 25~30%가량 증가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격적인 '명절맞이'에 나선 것이다.

30일 대한통운 물류연구팀이 최근 2년 간 설과 추석 택배 물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추석을 앞둔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전국적으로 7000만 상자의 물량이 움직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추석에 비해 25%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물량이다.

매년 택배시장 규모가 10% 이상 확대되고 있고, 경기 회복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유통 물량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택배업계들은 9월 6일부터 24일까지 추석특수 비상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선물 배송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대한통운은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진도 지난해 추석보다 물량이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다음달 6~17일까지 전국 95개 터미널과 보유차량 4700여대를 모두 가동하는 비상 운영체제에 돌입한다. 또 신선상품을 배송할 냉장·냉동차량 600여대, 집배송차량 1000여대도 추가 투입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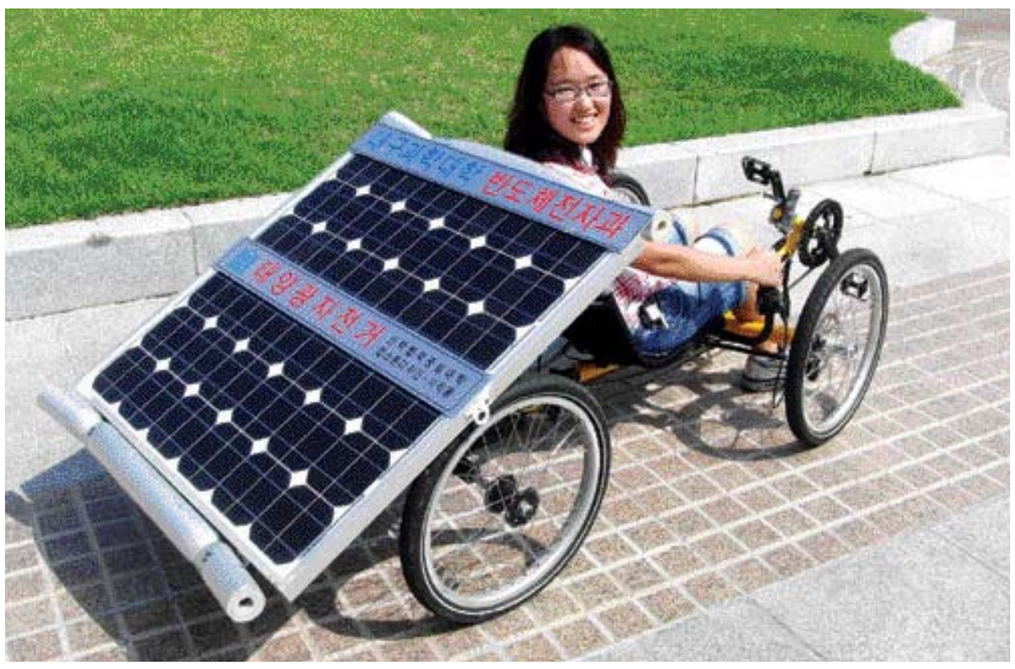
CJ GLS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터미널을 운행하는 간선 차량을 20% 가량 추가 투입한다. 연휴 전 일요일인 19일에도 정상적으로 배송에 나서 연휴 전까지 모든 선물 배송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현대로지엠은 다음달 20일까지 특별 수송기간 동안 1500여대의 차량을 추가 투입, 물류터미널 분류인력도 80% 증원한다. 본사 직원 400여명도 현장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택배사들은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18일 이전에 물건이 도착할 수 있도록 늦어도 15일 전후에 택배를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대 물량이 집중되는 13~15일 사이에는 파손될 수 있는 선물은 피하고, 보내더라도 신문지 등 완충재를 넣고 포장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태양광 자전거 첫 등장 30일 대구과학대학 캠퍼스에서 1인승 태양광자전거가 첫선을 보였다. 이 자전거는 대구과학대 우상규 교수팀이 개발한 것으로 태양광 모터와 페달을 함께 사용해 최고시속 40㎞까지 달릴 수 있다. /연합뉴스

'1000조 분의 1초' 초강력 레이저 빛 성공

美 버클리 국립연구소 최 현 용 연구원 개발

레이저 빛 발생 시간을 무려 1000조분의 1초까지 줄이는 획기적 기술이 한국인 주도로 개발됐다.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최현용〈사진〉 연구원은 이 같은 기술구현 원리를 입증한 '반도체 양자 폭포 레이저의 초고속 라비 진동(Rabi flopping)과 일관된 펄스의 전파(Ultrafast Rabi flopping and coherent pulse propagation in a quantum cascade laser)'란 논문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한 이 논문은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자매지이자 광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 29일자 최신호에 실렸다.

레이저에서 빛의 전파현상은 극초고속의 빛을 펄스로 만들어 내고 증폭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번 연구의 골자는 기존 레이저보다 1000배나 강력한 빛을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 레이저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원리를 밝혀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가 반도체 레이저에서 실용화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반도체 전자물리학을 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수십 평 규모에다 수십억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값싼 장비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상무지구 콜센터 건물 근린시설 분양

광주도시공사 내달 입찰

광주시도시공사가 설립중인 콜센터 전용 건물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 근린생활시설 운영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로 건립되는 콜센터 전용 건물은 연말께 완공될 예정이다.

30일 광주시도시공사에 따르면 콜센터 전용 건물은 건물 내 지상 4층~12층까지 콜센터 약 1500개 좌석이 들어서는 전국 최초의 콜센터 집적 건축물로 이번 사업자 모집은 지하 1층~지상 3층까지 들어설 식당, 은행, 편의점, 약국,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는 다음달 일반입찰을 통해 모집한다.

광주시도시공사 측은 라이나생명보험이 지난 7월 29일 광주광역시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준공시점까지 9개 층의 콜센터가 모두 임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콜센터전용건물에 대한 임대관련 문의사항은 광주도시공사 콜센터지원팀(062-600-6666)으로 연락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가계 고정금리 대출 취급현황 점검

금융감독원은 30일 가계에 대한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나 영업점 테마검사 등을 통해 변동 금리 대출의 이자 증가 위험성 고지 등 설명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와 함께 영업점 교육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일선 영업창구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코픽스 연동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만료일이 당초 8월 말에서 10월 말로 연장된 것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내 고객들이 고정 금리 대출이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대출 등 금리 변동성이 낮은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 금리 대출시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철저히 알리도록 했다.

일선 영업점이 장기 고정 금리 대출 및 잔액 기준 연동대출의 취급을 확대하도록 실적이 미흡한 은행에 대해 대출 독려를 지도하고 은행별 자체 대응전략 수립 및 이행을 추진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이자 수익의 증가 속도가 예금이자 비용보다 빨라 은행의 순이자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년후 한국인 자산 "현금이 최고"

인구 고령화로 위험기피도 상승…안전자산에 치중

2030년 자산 구성 전망

한국인의 금융자산 구성은 외국과 비교해 어떤 성향이고 이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상호 차장은 30일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 선택'이라는 논문에서 금융자산 현황과 인구구조 등의 자료를 분석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자산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자산은 예금·현금이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연금 24.2%, 주식 18.3%, 채권 10.5% 등의 순이다.

예금·현금과 보험·연금 비중이 15.2%와 29.7%이고 주식과 채권이 43.6%와 9.4%인 미국에 견주면 우리나라는 위험자산 비중이 낮은 편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자산 구성이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에 치우친 일본을 닮아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6월 나온 2008년 노동패널 자료의 연령별 자산 구성을 보면 20~30대는 예금 비중이 약 40~60%지만 60대 이상은 80~90%로 높았다.

논문은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2010년 38.0세에서 2030년 46.7세로 고령화하면서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싫어하는 '위험기피도' 역시 0.22에서 0.3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8%와 10%대인 주식과 채권 비중은 2030년에 12%와 7%대로 낮아진다고 계산했다.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안전자산 비중은 이 기간 70%대에서 80%대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차장은 "자산 구성에는 임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시하는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안전성과 유동성을 가진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우 먹고 타이거즈 응원하자"

한우協, 내달 2일 무등야구장서 '빛고을 한우데이'

전국한우협회는 9월 2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KIA타이거즈와 함께 '빛고을 한우데이'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IA타이거즈의 4강 진출을 응원하고 광주·전남 지역민들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구 경기 무료관람권 증정과, 한우불고기 시식회, 한우경품 제공, KIA 타이거즈 단체응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야구장을 찾은 일반 관중들을 대상으로 한우퀴즈, 댄스타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한우불고기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함께 한우를 먹고 힘을 내 KIA 타이거즈를 응원하자는 의미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